

낙랑문화와 주변지역과의 관련

王 培 新*
양은경 譯**

- I. 문헌속의 낙랑군과 관련된 기록
- II. 낙랑문화와 중국 내지의 漢·魏·晉 문화와의 관련
 - 1. 중국 내지의 묘제가 낙랑무덤에 끼친 영향
 - 2. 낙랑무덤의 부장품에서 보이는 漢문화의 요소
 - 3. 낙랑문화의 지방성
- III. 낙랑군과 삼한지역의 관련
 - 1. 낙랑군과 삼한 간의 교류를 보이는 문헌기록
 - 2. 다호리유적과 낙랑문화 교류의 고고학적인 관찰
 - 3. 낙랑군과 삼한의 교류에 관해서

* 吉林大學

** 부산대학교

I. 문헌속의 낙랑군과 관련된 기록

『後漢書』東夷列傳의 기록인 “漢初大亂，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而燕人衛滿擊破準而自王朝鮮，傳國至孫右渠”에 따르면 위만은 기자조선을 대신하여 왕검성을 삼대에 걸쳐 통치하였기에 위씨조선이라 명명한다. 또한 『漢書』武帝紀의 기록인 元封三年(기원전 108년), “夏，朝鮮斬其王右渠降，以其地爲樂浪，臨屯，玄菟，眞番郡”에 근거하면 기원전 108년에 조선은 그 왕 우거를 참수하고 항복하였기에 그 땅을 낙랑, 임둔, 현도, 진번군으로 하였다고 한다. 사서에서는 이를 한사군(漢四郡)이라 칭한다.

낙랑군은 위씨조선의 옛 땅, 즉 오늘날의 북한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북부에 설치되었다. 『後漢書』東夷列傳의 기록, “至昭帝始元五年(기원전 82년)，罷臨屯，眞番，以並樂浪，玄菟。玄菟郡復徙居句驪。自單單大領已東，沃沮，濊貊悉屬樂浪”에 의해 한사군의 폐지와 합병, 천도와 통치 과정에서 낙랑군의 범위가 확대되어 25개의 현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한대 만기에는 낙랑군의 범위가 이미 황해도 남부, 함경남도 및 강원도의 일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後漢書』東夷列傳의 기록, “建武六年(기원후 30년)，省都尉官，遂棄領東地，悉封其渠帥爲縣侯，皆歲時朝貢”을 통해 보면 광무제가 변군도위(邊郡都尉)를 폐지하였기에 낙랑군이 속한 영동칠현(嶺東七縣)도 폐지되었다. 이에 낙랑군의 범위는 축소되어 18개의 현을 관할하였다.

동한대 말기 공손씨가 요동에 할거하여 낙랑군을 통치하였다. 『三國志』東夷傳의 기록인 “桓、靈之末，韓濊强盛，郡縣不能制，民多流入韓國。建安中(기원후 196년~220년)，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興兵伐韓濊，舊民稍出，是後倭韓遂屬帶方”에 근거하면 대방군의 관할범위는 황해도 대다수의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志』東夷傳의 기록인 “景初中，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於嗣越海定二郡”에서는 경초2년(기원후 238년) 위나라가 공손씨 세력을 멸망시킨 이후 유주(幽州)의 관할지인 창려(昌黎)，요동(遼東)，현도(玄菟)，대방(帶方)，낙랑(樂浪)의 5군에 평주(平州)를 설치하였으며 후대에 유주와 합쳐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진대 초기 다시 평주를 설치하여 낙랑, 대방군을 관할하게 하였다. 『晉書』地理志의 기록인 “咸寧二年十月(기원후 276년)，分昌黎，遼東，玄菟，帶方，樂浪等郡國五置平州”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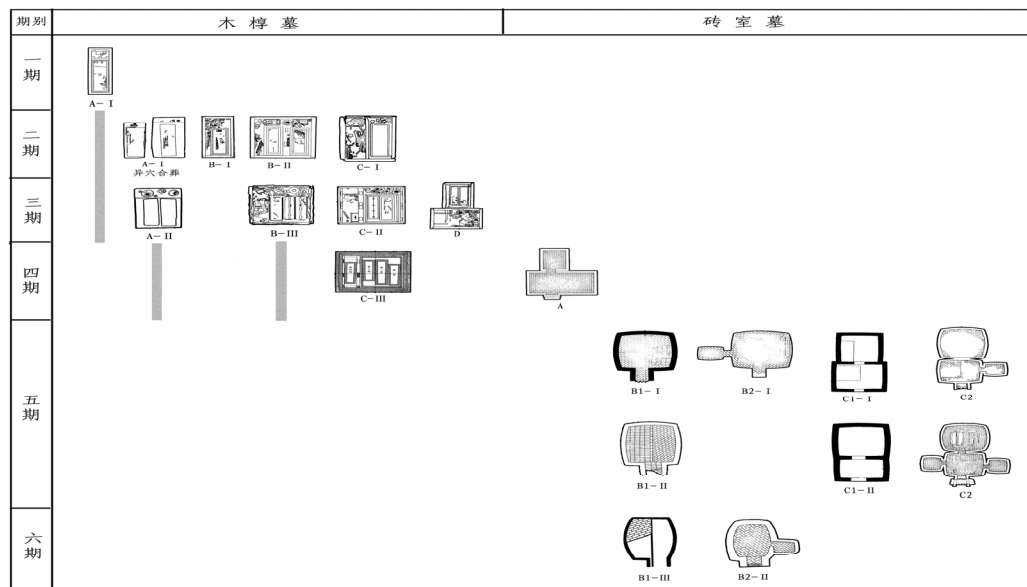
통해 서진대 말기 고구려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기원후 313년에는 낙랑, 대방군을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Ⅱ. 낙랑문화와 중국 내지의 漢·魏·晉 문화와의 관련

1. 중국 내지의 묘제가 낙랑무덤에 끼친 영향

낙랑의 문화유적으로는 무덤자료가 가장 풍부하다. 북한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발견된 낙랑무덤은 판곽묘(板槨墓) 중 단장목곽묘(單葬木槨墓)가 850여기, 목곽묘(木槨墓: 合葬木槨墓)는 200여기, 전축분 1000여기, 옹관묘는 600여기가 있다고 한다.

낙랑무덤의 주된 유형은 목곽묘와 전축분이다. 낙랑무덤의 분기, 편년에 대한 연구성과에 근거하면 낙랑무덤은 여섯 시기로 구분된다¹⁾<도면 1. 낙랑무덤의 변천과정 표시도>.



도면 1. 낙랑무덤의 변천과정 표시도

1) 王培新, 2007, 『樂浪文化-以墓葬爲中心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 제1기

연대는 서한 중기의 무제, 소제 시기이며 기원전 1세기 전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두부(頭部)에 부장칸이 있는 단인목곽묘(單人木槨墓)가 유행하며 매장방식은 단인장(單人葬)이다. 이와 유사한 무덤구조와 매장방식은 요령지역과 북경·천진·하북 지역의 서한 초기, 중기 목곽묘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 제2기

연대는 소제(昭帝) 이후의 서한대 중, 만기에 해당되며 기원전 1세기 후반기이다. 이 시기에는 두부에 부장칸이 있는 단인목곽묘와 좌우측에 부장칸이 있는 단인목곽묘가 출현하며 매장방식에서는 두 사람을 같은 무덤에 이혈합장(異穴合葬)하는 것이 유행한다. 이러한 무덤구조 및 매장방식은 요령·북경·천진·하북 및 산둥지역의 서한 중, 만기 무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 제3기

연대는 왕망이 건립한 신~동한 전기로 기원후 1세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두부에 부장칸이 있거나 측면에 부장칸이 있는 2인 혹은 3인 합장목곽묘가 출현하며 매장방식에서도 동곽합장(同槨合葬)이 성행한다.

● 제4기

연대는 동한 후기에 해당되며 기원후 2세기이다. 두부 혹은 좌우측에 부장칸이 있는 3~4인 합장목곽묘가 위주이며 매장방식은 여전히 동곽합장이 유행한다.

서한 말기~동한 초기, 중국 내지의 목곽묘는 이미 동곽합장이 진행되었으며 동한대에는 다인합장(多人合葬)이 성행한다. 중국 내지 무덤제도의 영향을 받아 낙랑의 목곽묘는 제3기부터 동분이혈합장(同墳異穴合葬)에서 동곽이인합장(同槨二人合葬)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제4기에는 많은 사람이 같은 곁에 합장되는 목곽묘(多人同槨合葬木槨墓)가 출현한다. 제3·4기의 낙랑 무덤과 강소지역 서한 말기~동한대 목곽묘의 구조는 아주 유사하다.

● 제5기

연대는 동한 말기에서 위나라 전기에 해당되며 기원후 190~240년에 해당된다. 이 시

기에는 목곽묘가 사라지고 전축분이 전면적으로 등장한다. 묘실의 네 벽면은 바깥쪽으로 호(弧)를 이루고 궁륭형 천정을 가진 단실묘와 전·후 이실묘(二室墓)가 유행한다.

동한 말기 요동군수 공손탁(公孫度)은 헌제 初平元年(기원후 190년)에 자립하여 遼東侯, 平州牧이 되었으며 요동에서 할거하여 현도, 낙랑군을 다스렸다. 공손탁의 아들 공손강(公孫康)은 헌제 建安年間(기원후 196년)에 낙랑의 남부지역을 나누어 대방군을 설치하였다. 공손씨 정권은 낙랑지역을 통제하여 낙랑군과 요동지역간의 연계를 강화시켰다. 낙랑의 무덤에서 제5기에 발생하는 변화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출현한 것이다. 낙랑의 전축분은 묘실 네 벽면이 바깥쪽으로 호를 이루고 높고 큰 궁륭형의 천정은 뾰족한 방추형을 이룬다. 이러한 구조의 전축분은 요동지역 및 산둥반도의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들은 실제 공손씨 정권의 범위에 속했다.

• 제6기

연대는 위 후기의 정시년간(正始年間)에서 낙랑군이 고구려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로, 기원후 3세기 중기~4세기 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낙랑무덤이 감소하였으며 무덤 구조는 둥근 원을 이룬 장방형의 전축분이 주를 이룬다. 산동·강소지역의 동한 후기~위진대 전축분의 무덤구조와 제6기 낙랑의 전축분은 상당히 유사하다.

낙랑무덤은 변천과정에서 시종 중국 내지 묘제의 영향을 받았다.

2. 낙랑무덤의 부장품에서 보이는 漢문화의 요소

낙랑무덤의 부장품은 질과 기능면에서 토기, 철기, 동경, 청동기, 무기, 거마구, 공구, 화폐, 문방구 등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토기의 기형으로는 화분형토기, 배부른단지, 호, 옹이 대표적인데 이 중 도질의 배부른 단지, 호, 옹의 기형은 요령·북경·천진·하북 및 산둥지역의 한대 무덤에서 출토되는 기물과 아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보면 낙랑토기의 기원은 중국 내지의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 중 도질 명기(明器)는 종류와 기형, 채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원지역의 한, 위대 무덤에서 출토된 기물과 흡사하다. 이외에 낙랑무덤에서는 시유된 토기, 경질토기와 청자가 소수 출토되는데 이러한 기물은 낙랑 현지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며 그 생산지는 화동지역(華東地區)이다.

칠기에 남겨진 명문을 통해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칠기는 사천성과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설치되었던 공관(工官)에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촉군(蜀郡), 광한군(廣漢郡)은 한대 유명한 칠기 생산지였으며 칠기에서 확인되는 명문 중 촉군서공(蜀郡西工), 성도군공관(成都郡工官), 광한군공관(廣漢郡工官), 자동군공관(子同郡工官)은 한대에 설치된 중앙에 속한 공관이다. 두 군의 공관에서 생산된 칠기는 대부분 궁궐에 공급되어 사용된 고급품이었다.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칠기 중 승여(乘輿)라는 명문이 있는 기물은 중앙정권에서 변방지역의 관리에게 하사한 것이다.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칠기의 종류와 수량은 무덤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규모가 보통인 무덤에 부장된 칠기의 수는 적으며 대형 무덤에 부장된 칠기는 30점 이상이나 된다. 승여(乘輿), 공관(工官)이란 명문을 가진 칠기는 대형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이는 칠기가 낙랑무덤에서 묘주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물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 내지에서 한대 이래 칠기가 점차 청동기를 대신하여 예기로 사용된 습속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랑무덤의 부장품 중 동경의 유형과 변천과정은 중국 내지의 한위시대 무덤에서 출토되는 동경과 일치한다. 부장품으로 사용된 청동기, 무기, 거마구, 장신구 등도 漢문화 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 낙랑문화의 지방성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 조선의 서북지역의 무덤은 흔히 토광묘(土壙墓)였으며 부장품으로는 한국식 청동무기와 거마구(車馬具)가 주를 이루었다.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 토광묘는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한식(漢式) 유물이 출현한다.

토광묘는 낙랑무덤에서도 현지 무덤제도의 대표적인 형식이었으며 비록 수는 많지 않았지만 점차 쇠락하는 추세로 나아갔다. 그러나 변천과정은 기원후 2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토광묘에 부장된 유물의 수량은 아주 적지만 현지의 특징을 반영한 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컸다. 세형동검, 동모를 대표로 하는 현지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청동무기는 기원전 1세기의 낙랑 토광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된다<도면 2.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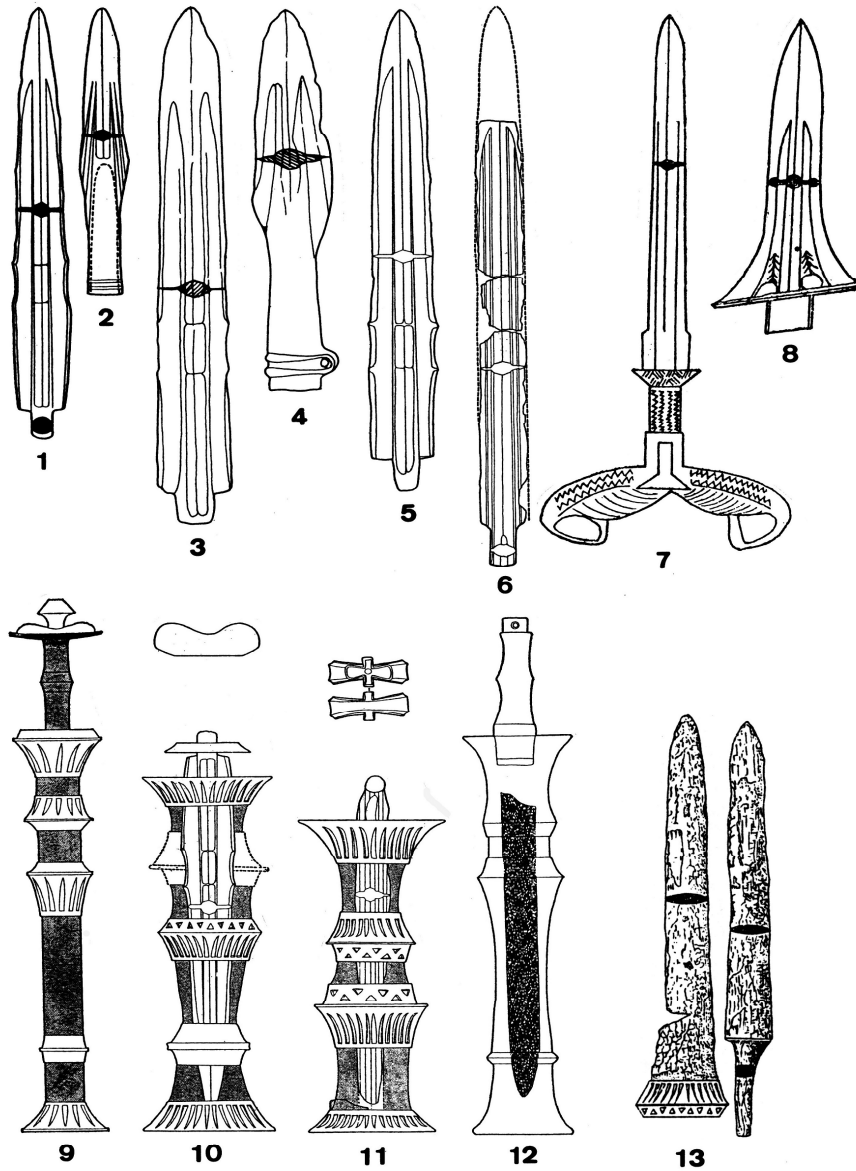


图2、乐浪墓葬出土青铜武器举例

1、2、10、13（贞柏洞1号墓出土，13为铁剑） 3、4（台城里10号墓出土）
5（贞柏洞2号墓出土） 6（天柱里土圹墓出土） 7、8（土城洞486号墓出土）
9（石岩里219号墓出土） 11（贞柏洞88号墓出土） 12（龙秋洞木椁墓出土）

도면 2.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무기

낙랑무덤에 부장된 거마구 역시 현지의 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한 청동제품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거마구는 조선의 서북지역에서는 기원전 3~2세기 유적에서 이미 출현하였으며 이중에는 기형이 비교적 특수한 예도 있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흔히 유물의 형상에 근거하여 을자형동기(乙字形銅器), 입형동기(笠形銅器), 권총형동기(拳銃形銅器), 부령동통(附鈴銅筒) 등으로 명명한다. 이런 종류의 유물은 더 이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흔히 한식(漢式) 거마구와 함께 출토된다.

낙랑유적 가운데 토착주민의 무덤으로 가장 명확한 예는 부조예군(夫租薺君) 은도장이 출토된 정백동(貞柏洞) 1호묘이다. 묘주인의 신분은 부조(夫租)지역의 예족 수령이었다. 이 무덤이 왜 평양지역에 매장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부조예군묘는 두부에 부장간이 있는 단장목곽묘(單葬木槨墓)로 부장품 중에는 현지의 특징이 강한 청동무기와 거마구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²⁾.

현지의 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한 청동무기와 거마구를 대량으로 부장한 낙랑무덤은 흔히 토광묘 및 부분적으로 두상(두부에 부장간을 지닌)이 있는 목곽묘가 있다. 이러한 무덤의 부장품 속에는 일반적으로 철기, 청동기, 동경 등 중국 내지의 제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묘주인의 신분은 낙랑군의 토착주민으로 간주된다.

Ⅲ. 낙랑군과 삼한지역의 관련

1. 낙랑군과 삼한 간의 교류를 보이는 문헌기록

『三國志』 東夷傳에는 “朝鮮侯準既僭號稱王，爲燕亡人衛滿所攻奪，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其後絕滅，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漢時屬樂浪郡，四時朝謁。桓、靈之末，韓濊強盛，郡縣不能制，民多流入韓國。建安中，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遣公孫模、張敞等收集移民，興兵伐韓濊，舊民稍出，是後倭韓遂屬帶方。景初中，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於嗣越海定二郡，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其次與邑長”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後漢書』 東夷列傳에는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乃將其餘衆數千人入海，攻馬韓，

2) 李淳鎮, 1964, 「關於夫租薺君墓」, 『考古民俗』 4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絕,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建武二十年(기원후 44년), 韓人廉斯人蘇馬謨等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謨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 四時朝謁, 靈帝末, 韓, 濊並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라 하였다.

문헌에서는 한대 낙랑군은 삼한과의 교류를 책임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서한대 후기 및 동한대 전기, 삼한은 낙랑군에 와서 조알(朝謁)을 하였다. 동한대 후기 한예(韓薺)는 강성하여 군현의 주민들은 한국(韓國)으로 많이 유입되어 왔다. 공손씨가 요동에 할거할 당시 낙랑은 남부지역을 나누어 대방군으로 하였다. 이후 삼한과 왜는 대방군의 관리를 받았다. 238년 위나라는 공손씨를 멸망시킨 후 낙랑, 대방군을 위나라의 영역으로 병합시켰으며 삼한 여러 나라의 수령에게 읍군(邑君) 혹은 읍장(邑長)의 직위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위나라가 낙랑, 대방군에 대한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2. 다호리유적과 낙랑문화 교류의 고고학적인 관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군 다호리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무덤 70여기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토광 수혈 목관묘이다. 무덤은 규모, 형태에 근거하여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Ⅰ류는 1호묘를 대표로 하는데 묘광의 길이는 2.8m이고 폭은 1m, 깊이는 1.7m이다. 묘광의 저부 중앙에는 장방형의 요갱을 판 후 부장품을 넣었다. 제Ⅱ류의 묘광은 제Ⅰ류와 유사하지만 요갱이 보이지 않는다. 제Ⅲ류의 묘광의 길이는 1.7~2m이고 폭은 0.5~0.7m, 깊이는 0.3~0.5m이다. 요갱은 없으며 부장품은 빈약하다. 철부(鐵斧)를 대표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철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오수전, 한대 동경, 대구 등 한식(漢式)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다호리유적이 낙랑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³⁾.

한국에서 개최된 “창원 다호리유적 발견의 성과와 과제”라는 국제학술대회와 다호리유적 발굴성과 특별전에 참가한 후, 필자는 다호리유적과 낙랑문화의 교류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는 무기와 공구가 위주이고 기형은 검(劍), 창(戟), 창(矛), 판상부(板狀斧), 도끼(鎚斧), 추(錘), 팽이(鑊), 가래(鍬), 호미(鋤) 등이 있다. 대다수의 철

3) 金元龍 監修, 1989, 『韓國考古學』, 講談社, 東京

기 기형은 중국 내지에서 출토된 같은 유형의 한대 철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종류의 구성 면에서 보면 다호리의 철기와 낙랑군지역의 철기는 비교적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기원전 1세기 후반 낙랑 문화가 이미 삼한지역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며 그 영향은 철기의 보급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⁴⁾.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철기는 무기, 공구, 거마구 등을 포함하며 무기의 주된 종류로는 검, 창(矛), 창(戟), 환수도(環首刀)가 있다. 공구로는 팽이(鑊), 가래(畚), 낫(鎌), 대패(鏹), 도끼(斧), 자귀(鑊), 끌(鑿), 집게(鉗) 등이 있다. 기원전 1세기의 낙랑무덤에서는 세형 청동무기가 한식(漢式) 철제무기와 공존하는 현상과 청동기 양식을 보이는 철제 무기가 확인된다.

석암리 219호묘에서 출토된 칠초철검(漆鞘鐵劍; 옷칠을 한 칼집의 철검)은 검의 몸체가 이미 부식되어 양식이 불분명하지만 칼집과 칼자루는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동검과 흡사하다⁵⁾. 정백동 1호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검의 몸체와 칠을 한 칼집이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동검과 유사하다. 또한 이 무덤에서는 3자루의 세형동검형 철단검이 출토되었는데, 검의 몸체는 한식(漢式)철검보다 넓으며 세형동검의 만기 형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검마루(脊柱)는 없다<도면 2 참조>. 초기철기시대에는 한국식청동기에 있어서 의기가 더욱 증가하고 청동무기는 표면장식을 중시하는 예기로 변화한다. 낙랑문화의 청동무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존재한다.

석암리 219호묘와 정백동 1호묘는 목곽묘이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이다. 석암리 219호묘의 부장품은 한식(漢式)유물이 위주인데, ‘王根信印’명의 은도장이 출토되었다. 묘주인의 신분은 낙랑군에 거주한 한인(漢人)이다. 정백동 1호묘에서 출토된 ‘夫租藏君’명 은도장의 묘주인은 부조지방의 예족 수장이다. 부장품 중에는 비교적 많은 현지 전통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청동무기와 거마구가 포함되어 있다. 기원전 1세기 낙랑 무덤은 한인(漢人)의 무덤이든 토착주민의 무덤이든 간에 부장품은 모두 현지의 전통문화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상당한 수량의 와질토기를 포함하고 있다. 태토, 문양, 소성 등 제작기술을 통해 살펴보면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와질토기는 한대 회색토기와 기본적으로 같다.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대부호(臺附壺), 파수부호(把手附壺), 소호(小

4) 王巍, 1999, 『東亞地區古代鐵器及冶鐵術的傳播與交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 樂浪漢墓刊行會, 1975, 『石巖里第219號墓發掘調查報告』, 『樂浪漢墓』 2

壺) 등의 토기는 현지의 전통문화를 표현한 기형을 보인다. 그러나 승석문(繩席文)단경호, 소형 편구호(扁球壺)의 기형은 낙랑무덤인 오야리 20호묘 제1곽, 제3곽에서 출토된 회색토기호와 흡사하다⁶⁾.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는 종류와 기형면에서 중국 내지에서 출토된 철기와는 차이가 난다. 용기류의 철기 기형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후기 무문토기의 형태와 유사하며 옷칠을 한 칼집과 우각형(牛角形) 철기 등의 기물에는 한국 청동기시대 이래의 전통문화 특징을 표현되어 있다.

낙랑무덤에서 출토된 철기의 종류는 용기와 문방구가 주요하며 기형과 장식은 모두 한대 철기와 유사하다. 철기의 명문은 이러한 유형의 철기가 중국 내지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낙랑무덤에서는 옷칠을 한 칼집, 옷칠을 한 거마구가 출토되고 낙랑무덤에 사용된 목관에도 보편적으로 칠을 하였다. 그러므로 낙랑문화는 중국 내지에서 철기를 수입한 것 이외에 현지에서도 이미 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옷칠을 한 세형동검 칼집의 출토는 낙랑 문화에서 철기가 일정한 정도의 지방적인 특징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한식(漢式)유물 등의 요소는 삼한지역 철기의 출현과 생산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낙랑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낙랑군과 삼한의 교류에 관해서

다호리 등의 한국 남부 원삼국시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성과와 문헌기록을 참고해보면 낙랑군과 삼한지역의 교류는 상층 사회의 정치·문화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민간의 생산 기술 교류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호리 1호묘는 대형 목관묘이고 목관은 직경 1m 좌우의 원목을 파서 만들었다. 무덤 구조는 초기철기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 무덤의 부장품은 풍부한데 토기는 후기 무문토기와 전기 와질토기가 있다. 청동기는 동검(銅劍), 동모(銅矛), 성운경(星雲鏡), 대구(帶鉤), 소동탁(小銅鐸) 등이 있고 철기로는 검, 창, 환수도(環首刀), 판상철부(板狀鐵斧), 공부(鑿斧), 가래(鍬), 호미(鋤)가 있다. 그 밖에 옷칠된 칼집(漆劍鞘), 화살통(箭筒), 옷칠된 활(漆弓), 칠갑(漆甲), 용기류, 붓, 부채살 등 다양한 철기와 유리구슬 등으로 판단하면 이 무덤은 변한(弁韓) 수령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6) 朝鮮總督府, 1935, 『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梧野里古墳調査報告』, 『昭和五年度古迹調査報告』 1

다호리유적과 유사한 낙동강유역의 원삼국시대 초기 유적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와질토기가 출현하며 철기가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대형 무덤에는 한식거울 등 중국계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⁷⁾. 동경은 한문화 중 생활용품에 속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남부에서 한대 동경이 출토되는 상황, 청동기의 예기화, 방제경의 제작 등의 요소를 고려해 보면 한식 동경이 삼한지역에 전래된 이후 아마 원래의 용도가 변화되어 예기(禮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지역에서 발견되는 대형 무덤의 부장품은 풍부하며 흔히 수장급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호리 1호묘 등 대형 무덤에서 출토된 한식 유물은 삼한과 낙랑군 간의 상층 사회 교류의 고고학적 유물로 해석된다. 다호리, 조양동 등 삼국시대 초기 유적에서 출현한 와질토기, 철기 및 철기의 보급은 두 지역 민간 생산기술 교류의 성과로 평가된다.

기원전 2세기 말 설립된 낙랑 등 한사군은 한 소제 始元5년(기원전 82년)에 변동이 생긴다. 임둔,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군에 병입시키고 현도군으로 바꾸어 다스렸다. 이러한 한사군의 조정은 낙랑군의 관할범위를 확대시켰고 낙랑군으로 하여금 제1의 번성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국 남부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현한 한식 유물과 새로운 문화요소 또한 이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낙랑군과 삼한지역의 교류가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한다.

7) 金元龍 監修, 註3)의 前掲書

乐浪文化与周边地区的联系

王 培 新*

一、文献中有關樂浪郡的記載

《后汉书·东夷列传》记载：“汉初大乱，燕、齐、赵人往避地者数万口，而燕人卫满击破准而自王朝鲜，传国至孙右渠。卫满取代箕氏朝鲜后，治王险城，传三世，称“卫氏朝鲜”。又据《汉书·武帝纪》记载：元封三年(BC108)，“夏，朝鲜斩其王右渠降，以其地为乐浪、临屯、玄菟、真番郡”。史称“汉四郡”。

乐浪郡设在卫氏朝鲜故地，即今朝鲜平壤市、南浦市、平安南道、黄海南道北部。《后汉书·东夷列传》记载：“至昭帝始元五年(BC82)，罢临屯、真番，以并乐浪、玄菟。玄菟郡复徙居句骊。自单于大领已东，沃沮、濊貊悉属乐浪”。汉四郡的废合、徙治，使乐浪郡范围扩大，领二十五县。西汉晚期，乐浪郡的地域范围已扩展到了黄海道南部、咸镜南道及江原道部分地区。

《后汉书·东夷列传》：“建武六年(AD30)，省都尉官，遂弃领东地，悉封其渠帅为县侯，皆岁时朝贡”。光武帝罢边郡都尉，乐浪郡所属岭东七县之地放弃，乐浪郡的范围有所退缩，领十八县。

东汉末公孙氏割据辽东，领有乐浪郡。《三国志·东夷传》记载：“桓、灵之末，韩濊强盛，郡县不能制，民多流入韩国。建安中(AD196~220)，公孙康分屯有县以南荒地为带方郡，遣公孙模、张敞等收集遗民，兴兵伐韩濊，旧民稍出，是后倭韩遂属带方”。带方郡所辖范围，为黄海道的大部分地区。

《三国志·东夷传》：“景初中，明帝密遣带方太守刘昕、乐浪太守鲜于嗣越海定二郡”。景初二年(AD238)曹魏灭公孙氏割据势力后，分幽州之昌黎、辽东、玄菟、带方、乐浪五郡置平州，后又合为幽州。

西晋初复设平州管辖乐浪带方郡。《晋书·地理志》：“咸宁二年十月(AD276)，分昌黎、辽东、玄

* 吉林大学

菟、带方、乐浪等郡国五置平州”西晋末年高句丽势力南侵，并于公元313年攻占乐浪、带方郡。

二、乐浪文化与中国内地汉魏晋文化的关系

1、中国内地墓制对乐浪墓葬的影响

乐浪文化遗存以墓葬资料最为丰富。据朝鲜学者统计，平壤市乐浪区发现的乐浪墓葬包括：板椁墓(单葬木椁墓) 850余座、木椁墓(合葬木椁墓) 200余座、砖室墓 1000余座、瓮棺墓 600余座。

乐浪墓葬的主要类型是木椁墓和砖室墓。根据对乐浪墓葬分期、编年研究成果，乐浪墓葬可以划分为六期¹⁾。(图1、乐浪墓葬演变示意图)

第1期，年代为西汉中期的武帝、昭帝时期，即公元前1世纪前半期。本期墓葬流行有头箱的单人木椁墓，埋葬方式为单人葬。相同的墓葬形制及埋葬方式普遍存在于辽宁及京津冀地区西汉早、中期木椁墓中。

第2期，年代为昭帝以后的西汉中、晚期，即公元前1世纪后半期。本期出现有头箱和边箱的单人木椁墓，埋葬方式流行二人同坟异穴合葬。类似的墓葬形制及埋葬方式可在辽宁、京津冀及山东地区西汉中、晚期墓葬中找到渊源。

第3期，年代为新莽—东汉前期，即公元1世纪。本期出现有头箱和边箱的二人或三人合葬木椁墓，埋葬形式流行同椁合葬。

第4期，年代相当于东汉后期，即公元2世纪。以有头箱和边箱的3~4人合葬木椁墓为主，埋葬形式仍然流行同椁合葬。

西汉末~东汉初，中国内地木椁墓已实行同椁合葬，东汉时期流行多人合葬。受内地墓制的影响，乐浪木椁墓从第3期开始由同坟异穴合葬向同椁二人合葬转变，第4期出现多人同椁合葬木椁墓。第3、4期，乐浪墓葬与江苏地区西汉末~东汉时期木椁墓形制最为接近。

第5期，年代为东汉末年至曹魏前期，约在公元190~240年。本期木椁墓消失，砖室墓全面登场，流行墓室四壁外弧，穹窿顶单室墓和前后二室墓。

东汉末辽东郡守公孙度于献帝初平元年(AD190)，自立为辽东侯、平州牧，割据辽东并领有

1) 王培新：《乐浪文化——以墓葬为中心的考古学研究》，科学出版社，2007年，北京。

玄菟、乐浪郡。其子公孙康于献帝建安年间(AD196),分乐浪南部设带方郡。公孙氏政权对乐浪地区的控制,加强了乐浪郡与辽东之间的联系,乐浪墓葬在第5期发生的变化,正是在这一历史背景下实现的。乐浪砖室墓,墓室四壁外弧,高大穹窿顶呈截尖方锥形。这种构造的砖室墓主要分布在辽东及山东半岛的北部,这一区域正是公孙氏政权的势力范围。

第6期,年代从曹魏后期的正始年间一直延续至乐浪带方郡被高句丽占领以后,即公元3世纪中期~4世纪后期。本期乐浪墓葬数量减少,墓葬形制以弧边长方形砖室墓为主。山东、江苏地区东汉后期~魏晋时期的砖室墓,墓葬形制与第6期乐浪砖室墓极为接近。

乐浪墓葬在发展过程中,始终受到中国内地墓制的影响。

2、乐浪墓葬随葬器物的汉文化因素

乐浪墓葬随葬器物按质地和功能可以划分为陶器、漆器、铜镜、青铜器、武器、车马具、工具、货币、文具等种类。

陶器以深腹罐、鼓腹罐、壶、瓮为代表器形,其中鼓腹罐、壶、瓮的陶质和器形都与辽宁、京津冀及山东地区汉墓出土的同类器物极为接近,乐浪陶器与中国内地文化渊源甚深。

乐浪墓葬随葬的陶质明器,类别、器形、彩绘等与中原地区汉魏时期墓葬出土的同类器物相同。此外,乐浪墓葬还出土少数釉陶、硬陶和青瓷器,这些器物并非乐浪本地制品,其产地应在华东地区。

漆器铭文显示,乐浪墓葬随葬漆器多产自设在今四川省和当时都城长安的“工官”。蜀郡、广汉郡是汉代著名的漆器产地,漆器铭文中“蜀郡西工”、“成都郡工官”、“广汉郡工官”、“子同郡工官”是汉代设置的中央直属“工官”。两郡“工官”生产的漆器多是供宫廷使用的高级品。乐浪墓葬随葬漆器中,有“乘舆”铭文的器物应该来自中央政权对边郡属吏的下赐。

乐浪墓葬随葬漆器的品类和数量与墓葬规模密切相关,普通规模的墓葬随葬漆器较少,大型墓葬随葬漆器多在30件以上。有“乘舆”、“工官”铭文的漆器出土于大型墓葬,表明漆器是乐浪墓葬显示墓主人身份的标志性器物。这与中国内地汉代以来漆器逐渐取代青铜器作为礼器使用的习俗同步。

乐浪墓葬随葬铜镜的镜式及演变序列均与中国内地汉魏墓葬出土铜镜一致。随葬的青铜器、武器、车马具、装身具等,也表现出强烈的汉文化因素。

3、乐浪文化的地方性

汉四郡设立之前，西北朝鲜地区的墓葬多为土圜墓，随葬器物以朝鲜式青铜武器和车马具为主。乐浪郡设立以后，土圜墓继续存在，同时汉式器物也出现在土圜墓中。

土圜墓是乐浪墓葬本地墓制的代表形式，虽然数量很少，并呈现逐渐衰落趋势，但按其自身变化规律一直延续到了公元2世纪初。土圜墓随葬器物数量较少，但本地文化特征的器物所占比例较大。以细形铜剑、铜矛为代表的本地文化特征青铜武器，出土于公元前1世纪的乐浪土圜墓和木槨墓中。(图2、乐浪墓葬出土青铜武器举例)

乐浪墓葬随葬车马具，包含有本地文化特征的青铜制品。此类车马具在西北朝鲜地区公元前3~2世纪的遗迹中就已经出现，其中的一些器形较为特殊，发掘报告通常按器物形状称之为“乙字形铜器”、“笠形铜器”、“拳铎形铜器”、“附铃铜筒”等。但乐浪墓葬随葬车马具，此类器形已不占优势，通常是与汉式车马具伴出。

乐浪遗存中最为明确的土著居民墓葬，是出土“夫租菰君”银印的贞柏洞1号墓，墓主人身份为夫租地方的菰族首领。关于该墓为何葬于平壤地区这一问题，目前还难以作出具有说服力的解释。夫租菰君墓为有头箱的单葬木槨墓，随葬品中包含较多本地文化特征青铜武器和车马具²⁾。

大量随葬本地文化特征青铜武器和车马具的乐浪墓葬，多为土圜墓以及部分有头箱的木槨墓。这些墓葬的随葬器物一般不见漆器、青铜器、铜镜等中国内地制品，墓主人身份应当为乐浪郡的土著居民。

三、乐浪郡与三韩地区的联系

1、乐浪郡与三韩交流的文献记载

《三国志·东夷传》记载：“朝鲜侯准既僭号称王，为燕亡人卫满所攻夺，将其左右宫人走入海，居韩地，自号韩王。其后绝灭，今韩人犹有奉其祭祀者。汉时属乐浪郡，四时朝谒。桓灵之末，韩濊强盛，郡县不能制，民多流入韩国。建安中，公孙康分屯有县以南荒地，为带方

2) 李淳镇：《关于夫租菰君墓》，《考古民俗》1964年 第4期。

郡，遣公孙模、张敞等收集移民，兴兵伐韩濊，旧民稍出，是后倭韩遂属带方。景初中，明帝密遣带方太守刘昕、乐浪太守鲜于嗣越海定二郡，诸韩国臣智加赐邑君印绶，其次与县长”。

《后汉书·东夷列传》：“初，朝鲜王准为卫满所破，乃将其余众数千人入海，攻马韩，破之，自立为韩王。准后灭绝，马韩人复自立为辰王。建武二十年(AD44)，韩人廉斯人苏马諝等诣乐浪贡献。光武封苏马諝为汉廉斯邑君，使属乐浪，四时朝谒。灵帝末，韩、濊并盛，郡县不能制，百姓苦乱，多流亡入韩者”。

文献记载，两汉时期由乐浪郡负责与三韩的交流。西汉后期及东汉前期，三韩时常到乐浪郡朝谒。东汉后期韩濊强盛，郡县居民多流入韩国。公孙氏割据辽东时，分乐浪南部为带方郡，其后三韩与倭即由带方郡管理。公元238年，曹魏灭公孙氏，将乐浪、带方郡并入其领域，加赐三韩诸国首领为邑君或县长，以确保曹魏对二郡的统治。

2、茶户里遗迹与乐浪文化交流的考古学观察

庆尚南道昌原市义昌郡茶户里遗迹发现原三国时代前期墓葬70余座，皆为土圻竖穴木棺墓。墓葬按规模、形态的不同分为三类。第Ⅰ类以1号墓为代表，墓圻长2.8m、宽1m、深1.7m以上，墓圻底部中央挖有长方形腰坑放置随葬品；第Ⅱ类墓圻与第Ⅰ类相似，但不见腰坑；第Ⅲ类墓圻长1.7~2m、宽0.5~0.7m、深0.3~0.4m，不见腰坑，随葬品相当贫乏。以铁斧为代表的多种铁器的大量出土，以及五铢钱、汉镜、带钩等汉式遗物的发现，表明该遗迹与乐浪郡有密切的联系³⁾。

通过参加《昌原茶户里遗迹发掘成果与课题》国际学术讨论会及参观茶户里遗迹发掘成果特别展，笔者谨对茶户里遗迹与乐浪文化的交流等问题提出以下粗浅认识。

茶户里遗迹出土铁器以武器和工具为主，器形有剑、戈、矛、板状斧、釜、锤、钺、锹、锄等，多数铁器的器形与中国内地出土的汉代同类铁器有所差别，而在种类构成方面与乐浪郡地区的铁器则有较多的相似性。可以认为，公元前1世纪后半，乐浪文化已对三韩地区产生了影响，其中最突出的表现就是铁器的普及⁴⁾。

乐浪墓葬出土铁器包括武器、工具、车马具等，武器的种类主要是剑、矛、戟、环首刀，工具有钺、钺、镰、铲、斧、镞、凿、钳等。在公元前1世纪的乐浪墓葬中，可以看到细形青铜武器与汉

3) 金元龙监修：《韩国考古学》，讲谈社，1989年，东京

4) 王巍：《东亚地区古代铁器及冶铁技术的传播与交流》，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9，北京

式铁制武器共存现象和青铜器样式的铁制武器。石岩里219号墓出土的漆鞘铁剑，剑身已经腐蚀样式不明，剑鞘和剑柄与茶户里1号墓出土铜剑相似⁵⁾。贞柏洞1号墓出土的细研铜剑，剑身和漆鞘都与茶户里1号墓出土铜剑相似，该墓葬还出土三件细研铜剑铁短剑，其剑身比汉式铁剑宽，与细研铜剑晚期形式接近，但无脊柱(参考图2)。初期铁器时代，韩国式青铜器礼仪性器物增多，青铜武器重视表面装饰，向礼仪用器演变，乐浪文化青铜武器也存在相同的情况。

石岩里219号墓和贞柏洞1号墓均是木椁墓，年代为公元前1世纪后半。石岩里219号墓随葬品以汉式器物为主，出有“王根信印”银印，墓主人身份为乐浪郡汉民。贞柏洞1号墓出有“夫租蕨君”银印，墓主人为夫租地方的蕨族首领，随葬品中包含较多本地区传统文化特征的青铜武器和车马具。公元前1世纪的乐浪墓葬，无论是汉民墓葬还是土著居民墓葬，其随葬品都不同程度地保留了本地传统文化因素。

茶户里遗迹土器包括相当数量的瓦质土器，从其胎质、修饰、烧成等制作技术层面观察，茶户里遗迹瓦质土器与汉代的灰色土器基本相同。茶户里遗迹出土的台附壶、把手附壶、小壶等土器为本地区传统文化器形。但绳席纹短颈壶、小形扁球壶的器形与乐浪墓葬梧野里20号墓第1椁、第3椁出土的灰色土器陶壶相似⁶⁾。

茶户里遗迹出土漆器，种类及器形与中国内地汉代漆器有所不同，容器类漆器的器形近似韩国南部后期无纹土器的形态，漆剑鞘、牛角形漆器等器物表现出韩国青铜器时代以来的传统文化特征。

乐浪墓葬出土漆器的种类以容器和文具为主，器形和装饰工艺都与汉代漆器相同，漆器铭文显示此类漆器产自中国内地。此外，乐浪墓葬还出土漆剑鞘、涂漆车马具，乐浪墓葬使用的木棺也普遍涂漆，所以乐浪文化除了从中国内地输入漆器以外，本地已经掌握了漆器生产技术。细研铜剑漆鞘的出土，表明乐浪文化漆器具有一定程度的地方特点。从茶户里遗迹共出的汉式器物等因素考虑，三韩地区漆器的出现及生产，也应在某种程度上受到了乐浪郡的影响。

3、关于乐浪郡与三韩的交流

吸收茶户里等韩国南部原三国时代遗迹考古成果，并参考文献记载，乐浪郡与三韩地区的交流似应包括上层社会之间的政治、文化交往和民间的生产技术交流两个层面。

5) 乐浪汉墓刊行会：《石岩里第219号墓发掘调查报告》，《乐浪汉墓》2，1975年。

6) 朝鲜总督府：《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梧野里古坟调查报告》，《昭和五年度古迹调查报告》1，1935年。

茶户里1号墓为大型木棺墓，木棺使用直径1米左右的原木剥凿而成，墓葬构造继承了初期铁器时代的传统。该墓葬随葬品丰富，土器有后期无纹土器和前期瓦制土器，青铜器有铜剑、铜矛、星云镜、带钩、小铜铎等，铁器有剑、矛、环首刀、板状铁斧、釜斧、锹、锄，其他还有漆剑鞘、箭筒、漆弓、漆甲、容器类、笔、扇骨等多种漆器和玻璃珠，可能是弁韩首领的墓葬。与茶户里遗迹相类似，在洛东江流域的多处原三国时代早期遗迹中，普遍出现瓦质土器，大量使用铁器，一些大型墓葬还随葬汉式镜等中国系器物⁷⁾。铜镜在汉文化中属于生活用品，考虑到韩半岛南部汉镜出土状况、青铜器礼仪化倾向、仿制镜的制作等因素，汉式镜在传入三韩地区后有可能被改变了其原来的用途，而成为礼器。

三韩地区发现的大型墓葬随葬品丰富，往往与首领级人物相联系，茶户里1号墓等大型墓葬出土的汉式器物可视为三韩与乐浪郡之间上层社会交往的考古学遗存。茶户里、朝阳洞等三国时代早期遗迹出现的瓦质土器、漆器以及铁器的普及，可以认为是两地民间产生技术交流的成果。

公元前2世纪末设立的乐浪等汉四郡，在汉昭帝始元五年(BC82)有所变动，罢临屯、真番，并入乐浪郡，玄菟郡徙治。汉四郡的调整，使乐浪郡的管辖范围扩大，乐浪郡迎来了第一个繁盛期。韩国南部原三国时代遗迹中出现的汉式器物及新文化因素，也正好处于这一阶段。种种迹象说明，乐浪郡与三韩地区的交流始于公元前1世纪后半期。

7) 金元龙监修：《韩国考古学》，讲谈社，1989年，东京